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고령자·숙련 외국인 적극 활용”

한국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을 노동 시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고령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60세 이후까지 고용을 연장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러나 고용연장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숙련노동자를 끌어오고 자 다양한 비자 혜택을 준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60세 정년을 둔 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295억 원이 편성됐다. 정년 없는 기업이 60세 이상 노동자를 일정 비율(1~23%) 이상 고용 시 분기별로 지급받는 지원금은 내년부터 노동자 1인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2022년부터 기업과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자 고용연장 방안이 법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연장 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문제는 아직 정책화 단계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용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고용 관련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인력 확충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발맞춰 숙련노동자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가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를 같은 업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한다.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숙련 노동자의 체류기간도 늘려준다.

# 서울 전세 시장 요동 한달 새 1억 원 상승도

서울 지역 전세 시장이 들쭉거리고 있다.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임박하면서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고 가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강남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신축 단지는 한 달 사이 1억 원이나 올랐다.

18일 '서울신문'이 한국감정원의 전날 발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9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셋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약 한 달 만에 서초구 0.56%, 강남구 0.25% 송파구 0.06%로 각각 뛰었다.

2017년 지어진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93.4㎡(13층)가 지난 6월 15억 원에 거래됐는데, 8월 7일에는 14억 원(8층)에 나갔었다.

불과 한 달 만에 1억 원이나 전셋값이 오른 것이다. 두 달 전엔 13억 5,000만 원, 지난 5월엔 13억 원에 거래됐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가 지난 16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8월 22~30일)'에서도 8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96.9)는 한 달 사이 2.9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세 심리지수(106)는 7월 104.4에서 1.6포인트 뛰었다. 수도권(100.7) 역시 7월(97.7)보다 3포인트 높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낮은 분양가를 받는 대신 공급을 줄이는 '분양가둠' 현상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낮아지고 이사철이 겹친 것도 한 요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동작구나 서초구 등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은 입주 물량이 저조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연말까지 11년 만에 최대 입주 물량인 4만 3,00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라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강남 인기 지역 등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